

# 오지호의 시대 정신서 현시대 본질을 읽다

“오지호 선생님은 좀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가던 예술가였잖아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의 접점에 대해 ‘예술가로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행적에 대해 주목했죠. 선생님님이 1950년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던 시절 광양 백운산에 입산하셔서 활동을 했기에, 방 작가 역시 그곳을 여러 차례 방문해 작업을 구상하고 진행했어요. 작가가 오지호 선생의 행적에 대해 집중했던 이면에는 편가르기보다는 마주했던 민족의 실상, 그리고 당대를 걱정했던 부분에 착안해 방 작가가 자신만의 화법으로 풀어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 신작 ‘문다. 문다’로 보면 됩니다.”

이는 주로 서울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2024년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한 방정아 작가(57·부산)의 작품 활동 이면에 대해 전시 오픈 전 광주시립미술관 한 학예사의 설명이다.

특히 방정아 작가의 예술과 오지호미술상이 지향하는 가치가 만나는 지점을 조망해보면 전시를 더욱 깊이있게 감상할 수 있다. 또 실제 작가가 예술과 공동체 실천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오지호 선생의 시대를 읽는 회화정신의 일면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방 작가는 영남권에서 꾸준히 정보미술운동과 함께 사회변혁을 위한 행보를 예술로서 보여온 행적과 궤를 함께 한다.

이런 방 작가의 전시가 지난 11월 21일 개막.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5.6 전시실에서 작가의 리얼리즘이 집약된 ‘문다. 문다’라는 타이틀로 열리고 있다. 출품작은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43점.

이번 전시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존에 주

목한 ‘방정아 리얼리즘’을 살펴본다. 전시는 ‘사회’, ‘여성’, ‘생태’, ‘일상’ 등 작가 작업의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먼저 ‘사회’ 섹션은 신작 ‘문다. 문다’ (2025)를 중심으로 그의 회화 첫 출발점을 알린 초기작 ‘아침 버스를 기다리는 구로공단의 여성들’ (1991)과 ‘얼룩진 손’ (2015), ‘깎아, 나왔어’ (2021) 등 현재까지 이어진 작가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읽힌다.

## ‘2024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 방정아전

1월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5·6전시실

‘사회’·‘여성’·‘생태’ 등 섹션…43점 선배

작가는 정치 구호 대신 위트와 솔직한 시선으로 현대 사회상을 해석하며, 민중미술의 거대 담론을 넘어 일상의 언어로 사회 모순을 드러내는 리얼리즘을 구축해왔다.

‘아침 버스를 기다리는 구로공단의 여성들’ (1991)과 ‘얼룩진 손’ (2015)은 노동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깎아, 나왔어’ (2021)는 주한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과 그것이 야기한 국제정치적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출품작 중 그의 시대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어 가부장 질서에 맞서는 추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숨쉬는 구체적 주체로 인식하는 작가의 ‘여성’ 섹션은 ‘튼 싹’ (2010)과 ‘급한 목욕’ (1994), ‘종부’ (2001), ‘수월관음도’ (2010) 등이 출품된 가운데 예술가이자 보통의 여

성으로 살아온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동시대 여성들의 보편적 서사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생태’ 섹션은 ‘재개발구역의 오동촌’ (2008), ‘미국, 그의 한결같은 태도’ (2021), ‘핵핵 Nuclear Nuclear’ (2016) 등 급속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 기후 위기로 파괴되는 자연 환경과 생명을 다루고 있다.

재개발 속 지워지는 개인의 흔적을 다룬 ‘재개발

구역의 오동촌’과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을 지시한 ‘미국, 그의 한결같은 태도’,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핵핵 Nuclear Nuclear’는 현시대 문제를 상기시킨다.

소, 닭, 돼지를 보살로 호명하는 ‘삼보살’ (2012), 인간의 어두움을 검은 개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검은 개-어둠 속에서 보기’ (2024), 로드킬로 죽은 생명을 추모하는 ‘흩어지고 있었어’ (2025) 등이 생태 위기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 작품들은 인간 중심 세계관의 폐해를 노출하는 셈이다. 최근의 폐현수막과 버려진 천을 재활용한 대형 길게 작업은 재사용 자체로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보여주며, 형광빛 녹색 선의 드로잉은 인간과 비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해체하며 연결된 생태계의 본질을 시각화한다.



‘아침버스를 기다리는 구로공단의 여성들’

이외에 ‘일상’ 섹션은 ‘좀 흔들리면 어때’ (2023), ‘열정을 대하는 태도’ (2022), ‘새로운 시선’ (2001), 전시 구성상 마지막에 해당하는 ‘잠시 디오니소스’ (2023) 등이 출품된 가운데 위트와 냉소, 위트가 어우러진 일상의 단편에서 작가의 서사가 투영된 회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뉴스와 관찰,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한 시대의 풍경을 ‘일상 읽기’라는 방식으로 화면에 옮긴다.

해방기 이념 대립 속에서 광양 백운산에 머물며 시대 현실을 마주한 오지호 선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미술도구와 그 시절의 기억을 땅에 묻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예술가는 어떻게 시대

와 마주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올해 7월 답사와 백운산 한재 퍼포먼스를 거쳐 회화 2점과 영상 1점으로 완성된 이 리서치 기반 프로젝트는 오지호 선생의 경험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며, 작가가 전착해온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존이라는 주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전시장에는 작가의 주요 작품과 함께 전시 도록에 기고한 비평가 조은정(미술사가)과 양진호 철학자(조선대 외래교수)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가&비평가 대담 인터뷰 영상도 상영돼 그의 회화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시립합창단

## 비발디와 헨델 성악·합창 무대로 한 해 마무리

시립합창단 1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Gloria’ 등 선사

합창음악의 황금기라 불리는 바로크 시대, 비발디와 헨델의 음악으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임창은)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02회 정기연주회 ‘바로크의 거장, 비발디와 헨델을 만나다’를 선보인다.

무대에서는 헨델의 ‘Dixit Dominus in G Minor, HWV 232’, 비발디의 ‘Gloria in D Major, RV 589’가 연주된다. 두 작품은 영국과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명작으로, 극적 대비·역동적 리듬·섬세한 선율미가 돋보인다. 특히 ‘Dixit Dominus’는 젊은 헨델의 지밀한 대위법과 드라마틱한 합창 구성이, ‘Gloria’는 밝고 경

쾌한 음향 속의 깊은 성창이 아우러져 가장 널리 사랑받는 바로크 성악·합창 레퍼토리로 꼽힌다.

협연으로 함께하는 카메라타 인터와 서울 (Camerata Antiqua Seoul)은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바로크 음악 축제에 초청되는 등 국내 대표 바로크 전문 연주 단체로, 역사적 연주(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방식을 기반으로 고악기 특유의 음향과 해석을 가장 섬세하게 구현해 온 앙상블이다. 이번 무대에서 광주시립합창단의 풍성한 합창 사운드가 만나 바로크 시대 성당의 울림을 현대 무대에 재현하는 깊고 입체적인 음향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의 전후에는 금관 5중주 ‘브래싱’(BRASSING)이 로비에서 미니 콘서트를 진행하고, 바로크 시대

의상을 착용한 배우들이 관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된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로크 시대대로 들어가는 듯한 몰입형 무대를 선사한다.

시립합창단은 올 한 해 ‘정구야~ 노을~자’, ‘피터팬과 후크선장’, 광복 80주년 기념 ‘Song of Arirang’ 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획들로 합창의 새로운 지평을 연 가운데 이같은 시도의 완성형인 이번 무대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웅장한 피날레가 될 예정이다.

임창은 예술감독은 “올 한 해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광주시립합창단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세 이상 관람, 전석 1만 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온라인으로 2025문화전당 대관 신청하세요”

시설 14개소·장소 협조 3개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방식이 온라인으로 간소화된다.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에 따르면 2026년 대관부터 대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대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유선 문의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던 대관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

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도입한 ACC 대관시스템(https://www.acc.go.kr/frs/index.do)은 ACC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ACC 대관시스템은 시설별 예약 가능 일정 확인, 신청-심의-계약-실무협업-사용 전 과정 온라인 처리, 대관 이력 조회 등 비대면 기반의 대관서비스를 제공한다.

극장, 전시관, 회의실, 연습실, 야외광장 등 대관 시설 14개소와 장소 협조 야외광장 3개소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ACC는 오는 15일까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대관시설 총 3개소(극장1~3)에 대한 내년 상반기(1월 2일~6월 30일) 정기대관 신청을 받고 있다.

회의실, 연습실, 야외광장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시대관이 가능하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온라인 대관시스템 도입으로 ACC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대관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미미와 로로’의 모험 여정 관람 재미 배가

광주미로센터 기획전 20일까지 센터 1층 전시 공간

광주 동구 미로센터는 기획전시 ‘MIRO UNLOCKED: 미미와 로로의 비밀지도’를 지난 9일 개막. 오는 20일까지 미로센터 1층 전시 공간 ‘미로 1’에서 갖는다. 출품작은 12점.

이번 전시는 최혁(ZAKHO)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미로센터 상징 캐릭터 미미(MIMI)와 로로(RORO)를 주인공으로, 이들이 안내하는 모험의 여정을 펼쳐 보인다.

관람객은 각 장면을 따라가며 미로센터가 품어온 다양한 예술적 순간들을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전시 기간 중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13일 오전 11시부터 미로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라이브 퍼포먼스와 DJ 공연을 비롯해 여러 체험 활동이 마련돼 관람객이 전시 속 미미와 로로의 세계를 보다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혁 작가는 “미로센터의 상징으로 탄생한 캐릭터들은 이 공간이 품어온 수많은 예술적 순간들을 장난스럽고 자유로운 감성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면서 “미미와 로로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풍경들을 열두 개의 장면으로 펼쳐 보인다”고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문의 062-608-2136.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현장 실무형 패션주얼리 전문가로 도약

광주대 ‘Delightful Lighty’ 패션쇼

13일 오후 5시 시립미술관서 런웨이

형 스트림을 통해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인 CLO3D를 활용한 19점의 3D가상착의 영상 제작물인 패션필름도 동시 상영한다.

패션쇼는 크게 무등산 이미지를 형상화한 광주대 심볼마크 활용 드레스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실용적이게 스타일링 한 기성복, 광주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을 하위문화(서브컬처) 콘셉트로 재해석한 Creative Artwear, 광주시민의 감정과 염원을 꽃으로 표현한 현대적인 K-Fashion 등에 무게를 두고 열린다.

허승연 교수는 “미래를 향한 열망을 담아 성장해 가는 꿈의 무대를 통해 광주대 학생들이 현장 실무형 패션주얼리 전문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세계 패션주얼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인재로 성장해 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